

광주 사립고서 또 시험문제 유출 '파문'

수학교사가 동아리 학생 31명에게 나눠준 유인물서 5개 문항 출제 학교측 재시험 치르기로... 시교육청 휴일 핑계로 전화조사만 '빈축'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수학교사가 일부 학생에게 기말시험 문제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교육청도 뒤늦게 사전 유출 사실을 파악했지만, 휴일이라는 이유로 전화조사로만 조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7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의 한 사립고에서 지난 5일 치러진 기말고사 3학년 수학 시험문제 중 5개 문항이 사전에 교내 수학동아리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기말고사 수학문제를 출제한 수학교사는 지난달 모의평가를 앞두고 수학동아리 학생 31명에게 수학문제가 나온 유인물을 나눠줬고, 이 유인물에 포함된 객관식 3개 문항과 서술형 2개 문항 등 5개 문항(26점)이 기말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5개 문항 중 3~4개 문항은 내신 1~2등급을 가릴 수 있는 최고난도 문항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의 수학동아리는 성적이 뛰어난 기숙사반 상위권 학생이 주축이 돼 활동하

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측에서 기말 시험문제를 출제한 수학교사가 사전에 나눠준 유인물에 포함된 문제 중 5개 문항이 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면서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일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으나 다른 학생들에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 "시교육청도 이날 해당 사건을 인지했으며, 휴일인 점을 감안해 8일부터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험지 유출사건이 알려지면서 학생들

과 학부모들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학교의 한 학부모는 "기숙사에 있는 우수 학생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다"면서 "사실상 기숙사에 있는 우수학생 외에 나머지 학생은 이들의 내신성적을 올려 주는 대리나 마친가지"라고 주장했다. 해당 고교 학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중·고교생이 주로 활동하는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리 학교는 상위 몇명만 챙기고 공부시켜 서울대에 보내는 학교"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이 학교는 정갈 학생만 챙기고 나머지는 버려서 실적 쌓기로 유명한 학교"라는 댓글을 달았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서 대낮 3인조 인질 강도 수영대회 앞두고 시민들 '불안'

아파트 현관 방충망 뜯고 침입 아이 인질로 엄마 협박 돈 강탈 북부경찰, 도주 4일만에 검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막을 앞두고 광주에서 3인조 일당이 백주대낮에 어린 아이를 인질로 잡아 아이 부모로부터 돈을 빼앗은 인질 강도 사건이 발생, 치안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질 강도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방범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전형적인 서민 아파트로, 폭염 속에 현관문을 열어놓고 있다가 범행대상이 됐다. 경찰은 A씨가 통풍을 위해 현관문을 열어놓고 방충망만 닫아놓아 표적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모르는 남성들이 갑자기 방충망을 뜯고 집 안으로 침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대상이 된 아파트는 1989년 준공된 복도식 아파트로 외부인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서민 아파트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 주말 현관문을 물론 창문까지 굳게 걸어 잠그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운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미진(여·52)씨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맞아 치안 등 귀속도 빼앗겼다. 당시 한 명은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협박에 못이긴 A씨가 통장과 함께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밖에서 망을 보던 공범 1명이 은행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했지만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거래가 중지

되자, 집안에 있던 강도들은 A씨의 자녀를 흥기로 위협한 뒤 A씨에게 직접 현금을 가져오도록 지시했다. 이후 A씨는 은행 2곳에서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을 통해 각각 600만원과 900만원을 마련했으며, 공범 1명이 A씨 주변에서 모든 행적을 감시했다. 강도들은 이날 오후 3시15분께 집으로 돌아와 A씨로부터 돈을 받고 나서 도주했다. A씨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아이는 2시간 동안 낯선 인질범들에게 잡혀 있어야 했다. 다행히 A씨와 아이는 별다른 해코지는 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4일 만에 CC-TV 등을 통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통풍을 위해 현관문을 열어놓고 방충망만 닫아놓아 표적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모르는 남성들이 갑자기 방충망을 뜯고 집 안으로 침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대상이 된 아파트는 1989년 준공된 복도식 아파트로 외부인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서민 아파트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 주말 현관문을 물론 창문까지 굳게 걸어 잠그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운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미진(여·52)씨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맞아 치안 등 귀속도 빼앗겼다. 당시 한 명은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협박에 못이긴 A씨가 통장과 함께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밖에서 망을 보던 공범 1명이 은행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했지만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거래가 중지

광주 대학병원 2곳서 방화·분신 시도 '아찔' 안전 관리 강화해야

광주지역 대학병원 2곳에서 각각 방화·분신 시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 환자와 의료진의 보호를 위해 병원 경비 인력확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A(45)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 45분께 광주시 동구 조선태병원 현관 앞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렸다. A씨는 소동 전 지역 언론에 전화해 "죽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가 2시간여 걸쳐 A씨를 설득한 끝에 인명피해 없이 상황이 종료됐다. 경찰은 다른 병원으로 A씨를 옮겨 정확한 경위와 함께 정신질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B(여·48)씨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B씨는 이날 오후 5시20분께 이 병원 응급실 이동식 침상에 결박돼 있던 중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인화용 라이터를 꺼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병원 직원이 소화기를 이용해 곧바로 불을 꺼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문화전당서 물놀이 "신나요"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를 7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광장 워터 슬라이드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베트남 출신 부인 무차별 폭행 남편 긴급체포

SNS 영상 퍼진지 하루 만에 영암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주 여성이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SNS에 퍼진 지 하루 만에 가해자인 남편이 긴급체포됐다. 영암경찰은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밤 9시부터 3시간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현장에는 두 살배

기 아들도 있었다. B씨의 지인은 지난 5일 오전 8시 10분께 B씨가 한국말이 서툰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와 아들을 쉼터로 후송해 가해자와 분리하고 병원치료를 받게 했다. 이날 술을 마신 A씨는 욕설과 함께 폭행을 했으며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폭행 피해 영상은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졌다. 2분 33초 분량의 영상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뒤 여성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또다시 폭행하는 장면

이 담겨 있다. 남성은 "베트남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지?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라며 여성을 욕박지르기도 했다. 옆에 있던 아이는 "엄마, 엄마"를 외치며 울음을 터뜨리다가 폭행 장면이 놀라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다. 영상은 폭력성이 심해 SNS 운영진에 의해 현재는 노출이 차단됐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 요구를 해 조사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보복 범죄가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쉼터에서 보호 중인 B씨의 지원 대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동창회 식사비 제공 혐의 정중순 장흥군수 불구속기소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동창회에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중순 장흥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정 군수와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비서실장 A씨는 무혐의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 군수 등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고향을 방문한 동창회 회원 30여명에게 식사비 등을 대신 제공하는 등 270만원을 부작질하게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충부취재본부장

물건 팔러 아파트 간 영업사원, 여성 속옷 '슬쩍'

○...40대 영업사원이 물건을 판매하러 방문한 아파트에서 여성의 속옷을 훔쳤다가 경찰서행. ○...7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45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장동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 빨랫줄에 걸려 있는 B(여·44)씨의 속옷 5장(6만5000원 상당)을 훔쳐 자신

의 자가용 트렁크에 보관했다는 것. ○...경찰에서 "중학생 때도 옆집 속옷을 훔쳐 어머니께 혼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A씨는 "최근 가정 불화와 업무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충동적으로 속옷을 훔쳤다. 범행 당시 다시 돌려놓을까 고민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포기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기차 좋음.
-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성가능.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중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광주 광산구 삼가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의료시설**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 토지 : 11139㎡(3369.5평) 건물 : 5530.56㎡(1612.5평)
감정가 : 40억3천만원 최저가 : (45%) 18억7천8십만원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70%) 10억1천7백4십만원
- 공장** 곡성군 삼기면 경곡리 토지 : 88181㎡(26674.8평), 건물 : 15264.64㎡(4617.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124억3천8백7십만원 최저가 : (29%) 35억6천6백5십만원
- 공장**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토지 : 3769㎡(1137.1평) 건물 : 2040.5㎡(617.3평)
지상1층 감정가 : 14억8천8백만원 최저가 : (45%) 6억6천6백8십만원
- 창고** 광주 남구 서동 토지 : 396㎡(119.8평) 건물 : 239.15㎡(72.3평)
감정가 : 5억8백7십만원 최저가 : 5억8백7십만원
- 근린주택** 목포시 옥암동 토지 : 407.8㎡(123.4평) 건물 : 716.43㎡(216.7평) 지하1층지상2층
감정가 : 7억6백5십2만원 최저가 : (70%) 5억8백7십만원
- 숙박시설**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토지 : 2042.2㎡(617.8평) 건물 : 2735.49㎡(827.5평)
지하1층지상5층 감정가 : 24억4천5백8십만원 최저가 : (45%) 10억9천5백7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